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9월 18일 현재 127명에 이르고 4조3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찰과 불교문화재의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50여 사찰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44건의 불교문화재를 포함해 227건에 달하는 문화재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 종단과 불교·복지단체 등은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복구작업에 동참하고 나섰다. 각지에서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편집자>

조계종은 9월 16일부터 대국민 호소문 발표, 성금 전달, 복구인력 파견 등 재해 복구에 동참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6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초유의 태풍으로 인해 불의의 재난을 당한 수재민에게 통절한 마음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하고 "민족과 고락을 함께해 온 조계종은 물심양면으로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호소문 발표 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나섰다. 태고종은 각 교구 총무원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활동을 펼치는 한편, 종단 소속 스님과 신도로 구성된 1백여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경남지역에 긴급 투입했다. 천태종도 9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총주KBS에 수재의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윤덕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국가적 재난에 직면한 수재민 여러분과

조계종 총무원=재해대책기구 구성·가동

태고·천태·진각종=봉사단 투입·성금모금

이날 한국방송(KBS)에 1억원의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고, 17일에는 부산과 마산 수해지역을 방문해 수재민과 불교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재해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태풍 피해복구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전국 교구본사에 공문을 보내 교구별로 수재성금 모금 및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할 것과, 피해사찰 현황을 조사하여 총무원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도 수재민 격려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결코 좌절하지 말고 굳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천태종은 14일 전국 말사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한달간 수재민 돕기 운동을 위한 모금 및 봉사, 후원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진각종은 15일 KBS에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부산, 대구, 광주, 포항 등 6개 교구청과 일선 심인당에 수재의연금 모금과 피해복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한명우·박봉영 기자**

도성암 요사채 유실...인명피해 2명 불국사 대웅전·전각12동 기와 파손

사찰 피해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간 남부 지방과 강원도 일부지역 50여 사찰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9월 12일 남부지방에 상륙한 태풍 '매미'는 조계종 각 교구본사와 말사에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등 심각한 타격을 줬다.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부산, 경남지역의 경우, 통도사 말사 도성암에서 12일 요사채 유실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범어사는 관음전, 천왕문, 미륵전 등의 기와 일부가 강풍에 파손됐다. 마산 정법사에서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경북지역 사찰들도 태풍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구 동화사는 석축이 붕괴되고 해탈교에 금이 가는 피해를 당했으며 현풍포교당, 천수암, 용화사 등도 폭우에 침수되거나 건물이 붕괴됐다. 영천 은혜사의 경우 신홍사, 봉림사, 죽림사, 신령포교당 등 말사들의 대웅전과 전각들의 기와, 석축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 불국사도 대웅전을 비롯한 경내 전각 12개 등의 지붕기와가 강풍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경북 울진 불영사는 진입로가 유실돼 외부와 단절되기도 했다. 천미회·박원규 이동혁 기자

불교계 태풍피해 사찰50곳·성보문화재 44건

종단·복지단체 복구의 '땀방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 종단들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에 나섰다. 사진은 9월17일 부산 수해지역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복구에 동참한 모습.

문화재 피해

국보 분황사 석탑 포함 227건 집계 문화재청, 실사거쳐 복구비 지원

태풍에 의한 피해는 문화재도 피해할 수 없었다. 분황사 석탑(국보 제 30호)을 비롯한 국보 3건, 보물 22건, 사적 28건, 지방유형문화재 45건 등 문화재 피해는 9월 18일 현재 전체 227건, 115억 2천5백만 원(추정 피해액)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교 문화재는 국보 2건, 보물 14건, 사적 3건 등 국가 지정 문화재 21건과 시·도 지정 문화재 23건에 총 25억 5천7백여만 원의 피해액이 신고됐다. 전남 여수시 흥국사는 팔각지붕, 다포양식의 대웅전(보물 396호)을

비롯한 사찰 내 건물의 기와와 용마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경북 군위의 군위삼존석굴(국보 제109호)은 담장과 석축이 유실돼 7천4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경남은 문화재 피해 역시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주 청곡사는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51호)의 기와가 파손되고, 두방암 다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200호)은 석탑의 옥개석이 무너지고, 요사채 일부도 파손됐다. 문화재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각 사찰별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의 문화재 복구 비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문화재청의 실사 후 문화재청의 재난대비 사후관리비(올해 20억)의 책정과 정부와 시·도의 재해 복구 예비비로 지급된다. **오유진 기자**



△범어사대웅전 지붕의 기와가태풍 '매미'에 의해 훼손된 모습.

피해불교문화재 현황(일부)			자료제공=문화재청
지역	문화재지정	문화재명	피해상황
강원	강릉시 보물 84	신복사지 석불좌상	경사지 토사유실
	고성군 지방기념물 51	고성 건봉사지	능파고 주변 허천변 토사유실, 부도군지 담장붕괴
전남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기와 및 용마루파손 담장석축 유실
	포항시 보물 252	보경사원전국사비	담장붕괴
경북	경주시 국보 30	분황사석탑	담장붕괴, 이완
	경주시 사적및명승1	불국사경내	담장붕괴·이완
경주	문화재자료 313	덕봉정사	대웅전의12동내림마루파손
	김천시 보물 297	청암사수도암 삼층석탑	담장붕괴·이완, 내림마루 파손
영천	보물 465	영천신원동삼층석탑	관사사 누수
	경산시 보물 562	환성사 대웅전	화장실 1동 유실, 석축 교량 2개
군위	국보 109	군위삼존석굴	대웅전기와의훼손
	영양군 보물 610	현일동삼층석탑	철문·미당붕괴, 담장 및 석축
경남	진주시 지방유형문화재 51	청곡사대웅전	담장·석축유실, 신사채 석축·철책붕괴
	통영시 사적 236	통영총림사	기와파손
밀양	보물 493	무룡사석조여래좌상	광한루, 일주문 지붕파손
	밀양시 보물 466	만어사삼층석탑	헬문 파손, 대웅전암 미당 허파
창녕	지방유형문화재 69	영산변화사지총석탑	종각 반파
	보물 212	관동사 대웅전	대웅전 기와파손, 진입로유실
창녕	보물 295	관동사유선 대석조석가여래좌상	법연배수로, 법화암 진입로 유실
	문화재자료 20	석불사 석불상	문목파손 4기
고성	문화재자료 39	호암사	일주문 기와벽체 붕괴
	남해군 문화재자료 41	운곡사	진입로 유실, 하천제방유실
남해	사적 233	남해총림사	진입로 유실 2개소
	남해군 문화재자료 152	화방사 채진루	창고·용량각 반파, 요사채 유실
남해	지방유형문화재 85	운문사 대웅전	대웅전석축, 하천복개시설 붕괴
			하천열개단, 하천복개, 진입로배면 유실
			헬문, 내삼문 전파, 마루기와 도괴
			외삼문 파손, 부속사 누수
			창해루 기와, 마루 누수
			석축 붕괴
			석축 붕괴

상식 '초월' 한 종관위



권형진 (취재1부 기자)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최근 행보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종관위는 9월 13일 동국학원 이사 13명 중 11월로 임기가 끝나는 8명(스님 5명, 재가자 3명)의 후임으로 16명을 뽑았다. 그러나 추천 씨가 포함돼 있어 부러부러 명단

하는데도 명단에 포함돼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문교부장관과 동국대 총장을 지낸 김법린 스님의 아들인 김씨의 사망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반응은 차지하더라도, 동국대를 이끌어갈 이사 후보를 뽑으면서 본인의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종립학교관리법상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이사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도 중앙종회 동의를 거

치지 않고 종관위 결정 사항에 관한 공문을 동국학원 사무처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다. 종관위 측은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법인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그런 공문을 거의 보내지 않다가 올해 들어 동국학원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도 절차를 무시한 '사실상의 결정 사항 통보'가 아니냐는 오해의 여지가 남는다.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가습 깊어 간직하며...



소납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님 전에 감사함을 간직하였으며 출가하여서는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가습 깊어 간직하였으며 승려로서 수행과 정진을 하면서는 여러 인연 불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공양하신 은혜에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며 기도 축원하였습니다.

부처님 해명을 받들어 전법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하는 동안 세월이 흘러 소납도 육신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현실에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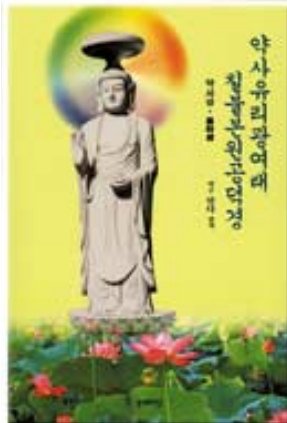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새벽기도 중에 밝아오는 여명으로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전, 부처님 전, 시주님 전에 더 늦기 전에 보은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처님 말씀 중에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은 세상을 살면서 병고액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길잡이가 될 것이며 「생전에수재 참회의 공덕」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인연 불자들에게 생전의 업장을 소멸케 하고 명부의 세계에서 고통을 면하게 해야 되겠다는 소납의 성심 어린 정성 발원으로 이 두권의 책을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편역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법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불은이 충만하시길 성심으로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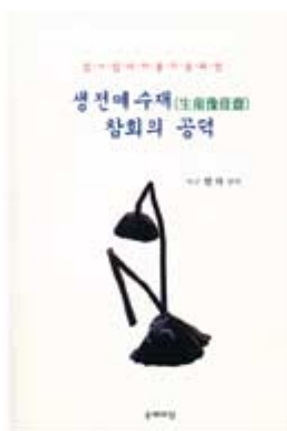
부처님 유교제자 만다 합장

출판 기념법회 안내

●일시 : 9월 24일 오후 6시 ●장소 : 유성 스피어 3층 크로바대강당



만다 편역 / 문예마당 펴냄 / 13,000원



만다 편역 / 문예마당 펴냄 / 10,000원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

약사경 · 藥師經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병마가 침입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축을 받아 중생들의 무병장수를 서원하며 성불하신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의 위신력을 담았습니다.

12가지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약사유리광여래의 행적을 찾아 경전을 읽을 때마다 중생들의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을 예경하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부처님의 명호를 항상 예송하며 믿고 실천 함은 필경 자신의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므로, 일체 병고액난을 해탈하는 한량없는 무량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참·사·람·의·아·름·다·운·회·향

생전에수재(生前豫修齋) 참회의 공덕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에만 크게 집착하였지 생을 마감하고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태어난다면 가야만 하는 길이 저승길입니다. 그렇다면 명부 열시왕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책 속에서 그 의문의 세계를 만나보고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후이신 마야 왕비께서 지옥중생을 구제하시는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의 사후세계를 염려하시어 상세하게 하문하시는 과정을 읽으신 후 과연 '생전에수재'를 올리는 공덕이 나에게 무엇이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법포사용으로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찰에서 다량으로 법포시 하시면 할인가능합니다.